

'홈런 군단' 부활 KIA, 파워 히터 낙점?

'MLB 3년 연속 20홈런' 패트릭 위즈덤 영입 추진



프로 야구 KIA 타이거즈가 메이저 리그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시카고 컵스 출신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과 내년 시즌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포츠 매체 CBS SPORTS는 15일 "위즈덤이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카고 컵스가 위즈덤과 재계약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KBO 무대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매체 ON TAP SPORTS NET 역시 "위즈덤이 KBO의 명문 구단 KIA 타이거즈에 합류했다. 팀의 2연패를 이끔며 통산 13번째 우승을 돕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박리기에 데뷔한 위즈덤은 이후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쳐 2020년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었다.

그의 진가는 2021년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10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1, 28홈런, 61타점, OPS 0.823(출루율 0.305+장타율 0.518)을 기록하며,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강타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그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꾸준히 홈런을 생산했지만, 삼진이 183개로 많고, 타율과 출루율이 낮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해 성적은 134경기 타율 0.207, 25홈런, 66타점 OPS 0.724(출루율 0.298+장타율 0.426)이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출전 경기 수가 줄어든 가운데 여전히 장타력은 유지했지만, 타율과 컨택트 능력 개선에는 실패했다. 97경기에서 타율 0.205, 23홈런, 46타점, OPS 0.789를 기록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타율이 급격히 떨어져 팀 내 입지가 좁아졌고, 올 시즌에는 75경기에서 타율 0.171에 머물며 컵스와의 작별을 맞았다.



시카고 컵스에서 뛰던 패트릭 위즈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즈덤의 MLB 통산 기록은 455경기, 타율 0.209, 88홈런, 207타점, OPS 0.750. 그는 정교함 부족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강력한 파워와 긴 비거리로 주목 받았다.

호랑이 유니폼을 입는다면 파워 히터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팀 타선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 구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장타력을 갖춰 한방이 있는 선수다. 내년 V13을 위해 좋은 활약을 기대된다"며 "아직 메디컬 테스트가 남아있지만,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최종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공식적인 발표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위즈덤의 입단이 최종 확정되면 KIA는 기존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의 자연스레 이별을 하게 된다. /주홍철 기자

'벌써 5승'...최다승 가보자

AI페퍼스, GS칼텍스 완파 시즌 최다승 타이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올 시즌 14경기 만에 5승째를 기록하며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AI페퍼스는 지난 14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의 홈 경기에서 3-0(25-18 25-13 25-17) 완승을 거뒀다.

5승 9패 (승점 15)로 5위에 자리한 AI페퍼스는 남은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면 단일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세운다.

AI페퍼스는 최하위 팀 GS칼텍스(1승 13패·승점 6)를 상대로 외국인 공격수 테일러(17득점)가 선봉에 섰고, 이한비(11득점), 박정아(10득점), 장위(10득점)가 고른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블로킹 득점에서 8-0으로 앞설 만큼 높이의 배구로 코트를 압도했다.

1세트 12-14로 끌려가던 AI페퍼스는 이한비, 장위의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이어 상대의 실책, 이한비의 오픈 공격, 장위의 블로킹으로 승기를 잡으며 세트를 가져왔다.



AI 페퍼스 첫 여성 감독으로 올 시즌 지휘봉을 잡고 팀을 중위권으로 이끌고 있는 장소연 감독. <KOVO 제공>

2, 3세트에서도 고비마다 터진 테일러와 이한비의 득점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고 GS칼텍스의 추격 의지를 꺾으며 3대0 완승을 거뒀다.

지난 10일 흥국생명과의 경기 패배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리며 자신감을 회복한 AI페퍼스는 오는 19일 오후 7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6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박희중 기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 복병 왕즈이에 덜미

BWF 왕중왕전 결승행 무산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3년 만의 왕중왕전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안세영은 지난 14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HSBC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2024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즈이(2위)에게 0-2(17-21 14-21)로 졌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1게임 9-12로 뒤지던 상황에서 연속 4실점 해 주도권을 잃고 게임을 내준 안세영은 2게임 중반까지 시소게임을 펼쳤으나 14-17에서 4점을 내리 잃어 경기에서 패했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은 올림픽 챔



안세영이 지난 14일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HSBC 월드투어 파이널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와 경기 중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피언과 한 시즌 열린 국제 대회 성적 상위권 선수 등 단 8명의 선수(팀)만 참가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회다. /연합뉴스

'2번 슈팅으로 2골'

마인츠 이재성, 뮌헨 2골 수훈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이재성(32)이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28)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트리며 당당히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POTM)의 기쁨을 맛봤다.

이재성은 14일 (현지시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뮌헨과의 2024-2025 분데스리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멀티골(2골)을 폭발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서 이재성은 정규리그 4-5호골을 잇달아 폭발하며 이번 시즌 첫 멀티골의 기쁨을 맛봤다.

소파스코어(평점 8.3)를 비롯해 풋몹(평점 9.1) 등 축구 통계 사이트들은 잇달아 이재성에게 양 팀을 통틀어 최고 평점을 줬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도 마인츠-뮌헨 경기의 '최고의 선수'로 이재성을 꼽았다.

분데스리가는 이재성을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면서 "두 골 모두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줬고, 마인츠 승리의 핵심이 됐다"고 밝혔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이재성이 뮌헨과의 경기에서 팀의 두번째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어 "이재성의 두 번째 득점은 압박 속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침착함을 잘 보여줬다"며 "이재성은 득점뿐만 아니라 마인츠의 전반적인 게임 플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뮌헨의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성은 이날 두 차례 슈팅을 시도해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며 진정한 '원샷원킬'의 능력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히트다, 히트' 김도영,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2024 화려한 피날레



지난 13일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루수 부문 수상자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득표율 97.2%'...최형우, 이대호 넘어 최고령 황금장갑 박찬호, 유격수 부문 첫 수상·김태군, 골든포토상 영예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개인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김도영은 1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루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2024시즌 KBO리그를 담당하던 미디어 관계자가 한 투표에서 김도영은 28표 중 28표를 얻어, 4표를 받은 송성문(키움)을 밀찌감치 따돌렸다.

만장일치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97.2%의 압도적인 지지로 올해 골든글러브 투표 대상이 된 선수 중 1위에 올랐다.

올 시즌 김도영은 그야말로 프로야구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특히 그가 세운 KBO 역대급 기록들은 정규리그 MVP와 골든글러브 수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그야말로 김도영으로 시작해서 김도영으로 끝난 한해였다.

올간 최초 '10홈런-10도루'를 비롯해 호타준족의 상징 '20홈런-20도루', 역대 2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KBO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21세 이하 최연소 최다 홈런,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등 엄청난 신기록은 이번 리그를 김도영의 무대로 바꿔놨다.

올 시즌을 화려하게 수놓은 김도영은 이미 7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각종 시상식도 짝꿍이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시상식에서도 3루수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KIA 선수가 3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건, 2009년 김상현 이후 15년 만이다.

김도영은 "올해 잘했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받은 트로피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며 내년 시즌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추운 겨울,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KIA의 베테랑 최형우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황금장갑을 수상하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지명타자 부문에서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며 40세 11개월 27일로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 신기록을 세웠다.

최형우는 이대호(전 롯데)의 40세 5개월 18일을 6개월 이상 늘렸다.

그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골든글러브를 품으며 개인 통산 7번째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유격수 부문에서는 박찬호(KIA)가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박찬호는 154표(득표율 83.5%)를 획득하며 박성환(SSG, 118표)을 제쳤다. 골든글러브 외에도 KIA는 올해의 사진을 뽑는 골든포토상에서 김태군이 수상하며 또 다른 기쁨을 안았다. /주홍철 기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박지원이 15일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혼성계주 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단체전 첫 금 4차 월드컵 혼성계주 우승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이 올 시즌 처음으로 월드컵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지원, 김태성(이상 서울시청),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는 15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혼성계주 결승에서 2분38초036의 기록으로 중국(2분38초051), 캐나다(2분38초513)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대표팀이 월드컵 단체전에서 1위에 오른 건 올 시즌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2위를 달리다가 결승선을 9바퀴 남기고 1위로 올라섰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박지원이 직선주에서 인코스를 파고들어 캐나다 선수를 절묘하게 제쳤다.

이후 최민정의 역주로 2위 그룹과 거리를 벌였고, 무섭게 따라붙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편, 전날 열린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홈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1분30초8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최민정(성남시청)은 동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